

초등학생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A Meta-Analysis on the Solution Focused Group Program Effect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박정임

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Jung-Im Park(strjung@seoil.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통합하여 제시하고, 보다 효과적인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5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메타분석의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논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메타분석을 위해서는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2.0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시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의 효과크기가 1.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적응능력이 1.35, 대인관계능력이 1.07, 자기효능감이 1.03의 순으로 나타나서 네 가지 변수 모두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둘째,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크기가 조절변수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변수는 자아존중감의 경우에 '총회기수'이었고 학교적응능력의 경우에는 '총회기수'와 '1회기당 시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실천적 함의와 전략을 제언하였다.

■ 중심어 : | 초등학생 |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 | 평균효과크기 | 메타분석 |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Solution 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meta-analysi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master's theses, doctoral dissertations, and journal articles published in Korea up to May, 2014 were systematically reviewed. As a result, a total of 20 studies were eligible for the inclusion criteria. The mean effect sizes and test for homogeneity of effect size (Q-statistic) were analyzed by using 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2.0.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effect sizes for Solution 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were ES=1.61 in self-esteem, ES=1.35 in school adjustment capacity, ES=1.07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ES=1.03 in self-efficacy, Seco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e variables of the effect size for the Solution 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were 'sessions' of self-esteem and 'sessions', 'running times' in school adjustment capacity.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research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 keyword : | Meta-analysis | Solution 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 Mean Effect Size |

* 본 논문은 2014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4년 07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9월 22일

수정일자 : 2014년 09월 11일

교신저자 : 박정임, e-mail : strjung@seoil.ac.kr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결중심 접근법은 본래 밀워키의 단기가족치료센터에서 개발되었는데, 이 모델에서는 ‘내담자가 이미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해결중심 접근법의 특징은 내담자의 문제보다는 강점과 장점 및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 스스로가 치료의 목표를 발견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42].

이와 같은 해결중심 접근법은 지난 수십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아동, 청소년,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들에게 시도되고 있다[42].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도에 개발자인 Insoo Berg과 de Shazer가 워크숍을 통해서 소개한 이후로 사회복지, 간호학,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등 여러 분야에서 도입이 되었고, 해결중심접근 중에서도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은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장애아동가족, 청소년, 만성질환자의 자녀 등에게 적용되어 효과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0].

한편, 해결중심 접근법은 여러 대상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초등학생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제시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10].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에게 유용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아동은 가족들에게 억지로 끌려와서 치료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비자발적 내담자’ 혹은 ‘방문형 내담자로’ 간주되어 왔으나, 해결중심 접근법은 내담자의 강점과 성공적인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아동들과 빠른 시일 안에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치료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유리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30].

둘째, 지금까지 기존의 초등학생을 위한 상담이나 집단프로그램들은 지나치게 문제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개입기간도 길고 매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여 실천현장의 교사, 상담가, 사회복지사 등은 문제 중심의 전문적인 상담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9].

반면, 해결중심 집단상담은 초등학생들의 강점과 장점을 부각시키고 아동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자신

감을 향상시키며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돕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실제로 국내에서 2000년대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들을 보다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메타분석방법’을 실시하고자 한다. 메타분석방법은 특정영역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많은 개별연구들의 결과를 하나로 종합하는 접근방법으로, 개별연구들의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분석법이다[15]. 메타분석방법은 작은 표본수, 한정된 대상자, 연구 실행과정에서의 한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별연구들의 제약조건을 극복할 수 있으며,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한 여러 연구들의 병합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좀 더 강한 종합수치를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메타분석방법은 여러 연구에서 나온 정보를 종합하게 됨으로써 통계적 검정력도 증가될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은 국내에서 실시된 초등학생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조절변수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른가?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문제들의 검증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초등학생들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해결중심접근의 주요개념과 원리

해결중심접근은 de Shazer와 Insoo Kim Berg 등이

밀워키에 있는 단기가족치료센터에서 개발한 모델이다 [43]. 이 모델에서는 기존의 문제중심적인 접근을 벗어나서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해결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어 의미있는 해결방안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결중심모델의 주요 원리는 첫째, 병리적인 것 대신에 내담자의 강점, 잠재력 등에 초점을 둔다, 둘째, 내담자의 강점, 자원, 건강한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셋째, 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인 입장을 취하며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한다, 넷째,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두고 일단 변화가 일어나면 더 나은 변화들이 파급된다고 본다, 다섯째, 변화는 항상 일어나면 불가피한 것이다, 여섯째, 현재와 미래를 지향한다, 일곱째, 내담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43].

한편, 이 모델의 개발자인 de Shazer와 Berg(1997)는 해결중심모델의 7가지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기적질문의 사용, 척도질문의 사용, 쉬는 시간에 자문시간을 갖고 내담자에게 메시지(칭찬 목록)를 주기, 과제주기, 강점이나 해결책을 찾기, 목표설정, 문제에서의 예외상황 찾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해결중심접근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데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Kim(2008)과 이해은(2009)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결중심접근의 구성요소가 각각 한 가지 이상이나 세 가지 이상인 연구일때 해결중심접근으로 보고 이를 메타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메타분석 대상연구를 선정할 때에,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시행한 연구일지라도 해결중심접근의 구성요소가 세 가지 이상인 경우에만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2. 해결중심접근의 메타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외국에서도 해결중심접근이 여러 실천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성을 평가한 실험연구들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 때문에 메타분석연구도 매우 소수이다[44].

해결중심접근의 메타분석연구로 미국의 Kim(2008)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발표된 해결중심접근의 효과성 논문 22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

구결과, 해결중심접근은 외적 행동문제(과잉행동, 품행장애, 공격성), 가족관계문제에는 효과적이지 않고 내적 행동문제(우울증, 공포, 자아개념, 자기존중감)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44].

국내에서 해결중심접근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한 연구로써 이해은(2009)의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해결중심접근을 적용한 집단상담의 효과성 연구 54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효과크기가 .920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해결중심 집단상담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증해본 결과, 중학생이나 성인에 비해서 대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집단에서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5회 미만보다는 9회-11회 정도의 회기수가 효과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APA 6가지 기준¹⁾에 잘 부합될 수록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해결중심 집단상담을 메타분석한 선행연구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다만, 모든 대상자와 종속변수들의 평균효과크기를 통합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해결중심접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자와 종속변수에 효과가 있는가를 알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 메타분석의 경향은 특정대상이나 특정문제 등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 강조되고 있다[5].

3.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본 연구에서는 해결중심접근 중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며, 종속변수의 평균효과크기와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절변수를 탐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조절변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이론이나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방법, 연구물에 제시되어 있는 공통적 변수들을 모두 코딩하여 분석하는 방법, 연구자의 직관, 호기심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15], 본 연구

1) 무선 표집의 유무, 통계치가 제시되어 있어 다른 치료와 비교가능한지의 여부, 분명한 측정문제나 모집단의 정의, 타당하고 신뢰로운 측정도구의 사용, 일정한 치료매뉴얼을 사용하거나 비디오나 오디오를 통한 치료과정의 점진과정의 충실성, 25명 이상의 사례수

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조절변수를 선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첫째, 대상자의 '연령'이 있다. 국내에서 실시된 집단상담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대상자의 특성 중 '연령'은 집단상담의 평균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박소연(1993)의 메타연구에서는 집단상담이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지선(2001)의 메타연구에서는 집단상담이 14세-16세 아동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계현(2002)의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국내 집단상담의 성과 연구 198편을 분석한 결과, 집단상담은 초등, 중등, 고등학생 모두에게 효과크기가 컸지만, 이 중에서도 초등학생에게 가장 효과크기가 컸으며 이는 대학생의 평균효과크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연령이 집단상담의 효과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메타분석 연구들도 있었다[32][35][36].

둘째, '총 회기수'가 있다. 이해은(2009)의 메타연구에서는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경우에 9회에서 11회가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입증되었다. 이밖에도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총 회기수가 평균효과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제시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까지 입증되지는 못하였다[5], [8][32][37]. 셋째, '실험집단 인원수'가 있다. 실험집단의 인원수가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0-15명인 경우[32], 11-15명인 경우[37], 20명 이하인 경우[8] 등 다양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수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

넷째, '1회기당 시간'이 있다. 1회기당 시간이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신영 등(2013)의 메타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이 60분-90정도의 시간을 가질 때 통계적으로 가장 의미있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밖에도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서 1회기당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연구들이 있었으나[13], 1회기당 시간이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었다[17].

종합하여 볼 때, 위의 연구결과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효과크기의 조절변수로써 연령, 총 회기수, 실험집단 인원수, 1회당 시간을 선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보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메타분석을 하기 위하여, 2014년 5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문헌데이터베이스는 RISS 사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초등학생"과 "아동", "해결중심 집단상담"등을 검색어로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기에서 검색된 학위논문 91편과 학술지 논문 18편 중에서도 다음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별작업을 거쳤다. 즉, 메타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연구들은 통계집단과 실험집단이 설정된 실험연구이어야 하며 연구결과에서 통계적 수치가 분명한 연구이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다[15].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조건에 따라 논문을 선정하였다. 또한, 해결중심접근의 개발자인 de Shazer와 Berg's(1997)에 따르면, 해결중심접근은 7가지 핵심요소 중 3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논문내용이 3가지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존재하는 논문과 연구결과에 표본수와 통계적 수치가 제시되며 3가지 이상의 핵심요소가 포함된 논문인 26개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이 겹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20개의 논문을 활용하였다.

2. 코딩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을 하기 위하여 코딩표를 작성하고 자료를 논의한 다음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코딩항목으로는 저자명, 출판년도, 연령,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인원, 대상자의 특성, 연령, 총 회기수, 1회기

당 시간,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평균과 표준편차는 원점수 그대로 순서대로 코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메타분석 통계방법인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0)을 사용하였으며 효과크기에서 bias를 제거한 효과크기인 Hedges'g를 활용하였다. 또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Q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절변수의 탐색을 위해서 랜덤효과모형을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에서는 출판편의를 알아보기 위해 깔때기 그림(Funnel plot)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서로 대칭을 이루어 편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종속변수 선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논문 중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논문은 20편이었고 효과크기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²⁾ 그러나, 이 중 전체집단의 효과크기의 분포에서 정상범위를 상당히 벗어나 이상치(outlier)로 판별된 서보업외(2011)의 연구와 김필숙(2009)의 연구는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활용한 논문은 총 18편이었다. 이 중에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측정에 활용된 종속변수는 가장 많이 활용된 변수들로 자아존중감³⁾,

2) 일반적으로 메타분석에서 전체집단의 효과크기의 분포에서 정상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이상치(outlier)는 크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관찰값과 아주 다른 관찰값으로 전체 평균효과크기를 구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20].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의 이상치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Turkey의 'hinge'를 선택하였는데, 이 방법은 백분율의 1사분위수(25%)와 3사분위수(75%)사이의 구간에서 상하로 1.5배에 해당되는 점을 지나 분포하게 되는 모든 수치를 이상치로 규정하는 것이다 [20]. 본 연구에서는 서보업 외(2011)의 연구와 김필숙(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효과크기가 outlier로 나타나서 두 연구의 효과크기는 제외하고 평균효과크기 및 조절변수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자아존중감 종속변수에는 자아탄력성도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아탄력성도 포함함

학교적응능력⁴⁾,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⁵⁾이었다.

표 1. 연구대상 문헌

번호	저자	연도	인원 (실험 /통제)	연령	대상자 특성	총 회기수	1회기당 시간	종속변수	Effect Size
1	홍기은 외	2010	실험:6명 통제:6명	9세	외현화 문제 행동	10회	60분	자아존중감	1.797
2	서보업 외	2011	실험:12명 통제:12명	11세	자아탄력 성이 낮음	10회	60분	자아탄력성	5.944*
3	하유정	2013	실험:10명 통제:10명	12세	학습 부진아	6회	50분	자기효능감	1.066
4	이선욱	2007	실험:10명 통제:10명	12세	학교적응 력이 낮음	8회	50분	학교적응력	2.750
5	이보용	2011	실험:10명 통제:10명	13세	일반 아동	6회	100분	자아존중감	1.022
6	전기수	2004	실험:8명 통제:8명	12세	일반 아동	5회	100분	학교생활적응 대인관계	-0.312 0.486
7	고애화	2008	실험:8명 통제:8명	12세	결손 가정	10회	50분	자아존중감	2.353
8	임양숙	실험:15명 통제:15명	12세	결손 가정	10회	40분	자기효능감	0.728	
9	김미정	2008	실험:5명 통제:5명	12세	학교생활 적응이 낮음	8회	50분	학교생활적응	2.139
10	강명희	2005	실험:12명 통제:12명	13세	일반 아동	6회	70분	자기효능감	0.951
11	윤보영	2005	실험:14명 통제:14명	12세	일반 아동	10회	50분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1.137 0.958
12	조희주	2011	실험:8명 통제:8명	12세	일반 아동	9회	50분	자아탄력성	0.793
13	이윤영	2005	실험:8명 통제:8명	12세	일반 아동	10회	50분	자아존중감	1.408
14	조선미	실험: 12명 통제:12명	13세	일반 아동	8회	60분	학교생활태도	1.408	
15	정정숙	2005	실험:8명 통제:8명	11세	학습부진 아동	8회	50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1.211 0.636
16	김영진	2005	실험:12명 통제:12명	12세	고립 아동	10회	50분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1.981 1.912
17	강향욱	2002	실험:14명 통제:14명	12세	일반 아동	10회	50분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1.137 0.958
18	김금주	2008	실험:5명 통제:5명	11세	한부모 가족	8회	60분	자기통제력	-0.110
19	김필숙	2009	실험:10명 통제:10명	12세	일반 아동	10회	50분	자기통제력 학교생활적응	4.493* 5.361*
20	남보영	2014	실험:7명 통제:7명	12세	지역아동 센터아동	12회	90분	학업적 자기효능감	0.099

*이 논문의 효과크기는 이상치로 선별되어 최종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2. 종속변수별 효과크기 및 동질성검증

초등학생들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해 주요 종속변수로써 논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자아존중감, 학교적응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4) 학교생활적응 종속변수에는 학교생활태도도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생활태도도 포함함
5) 자기효능감 종속변수에는 자기통제력도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통제력도 포함함

초등학생들에 대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면, 랜덤효과모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효과크기가 1.605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학교적응능력이 1.3490, 대인관계능력이 1.0670, 자기효능감이 1.0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Cohen(1988)의 효과크기 해석기준에 따라 $ES \geq 0.80$ 을 큰 효과크기, $ES \geq 0.50$ 을 중간 효과크기로 볼 때, 자아존중감, 학교적응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이 모두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또한, 이러한 결과의 내적타당성 확보를 위해 출판편의를 살펴본 결과 각 퍼널 플롯(Funnel plot)은 대칭을 이루고 있었으며 Rosenthal 안전계수(failsafe) N이 230개, 195개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학교적응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각각 $Q=24.379$, $Q=19.587$, $Q=14.400$, $Q=15.025$ 으로 $P<.05$ 수준에서 연구 내 효과크기가 동질적이라는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각 종속변수별로 어떠한 조절변수에 따라 효과크기가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조절변수를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로 제시된 연령, 실험집단 인원, 총회기수, 1회기당 시간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2. 자아존중감, 학교적응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의 효과크기와 동질성 검증

구분	연구물수	Hedges'g	Q	df	p
자아존중감	9	1.6050	24.379	8	0.000
학교적응능력	5	1.3490	19.587	4	0.001
대인관계능력	4	1.0670	14.400	3	0.022
자기효능감	5	1.0250	15.025	4	0.012

3. 조절변수에 대한 분석

1) 자아존중감에 대한 조절변수

먼저 초등학생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연속형 조절변수인 '연령' '실험집단인원', '총 회기수', '1회기당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분석 결

과, '연령'은 부(-)방향의 기울기를 나타내었으며, $\beta = -0.11019$ 로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실험집단인원도 정(+)의 기울기 방향을 나타냈으나 $\beta=0.02451$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총회기수'는 정(+) 방향의 기울기를 나타냈으며, $\beta = 0.21825$ ($p<.10$)으로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총회기가 1회가 많아질수록 효과크기가 0.21825만큼 늘어났다. 1회기당 시간도 부(-)의 기울기 방향을 나타냈으나 $\beta = -0.00679$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자아존중감에 대한 조절변수

구분	β	SE	Z	P
연령	-0.11019	0.19431	-0.56706	0.57068
절편	2.63533	2.29818	1.14670	0.25150
MODEL	Q=0.32155(0.57068)			
실험집단인원	0.02451	0.06930	0.35872	0.67452
절편	1.22472	0.54783	2.00782	0.21088
MODEL	Q= 0.04298 (p=0.67324)			
총회기수	0.21825	0.12354	1.63742	0.03854
절편	-0.45625	1.04923	-0.33596	0.49185
MODEL	Q=3.07623 (p=0.06674)#			
1회기당 시간	-0.00679	0.08813	-0.89675	0.28934
절편	1.18576	0.39233	3.46123	0.00019
MODEL	Q=0.67435(p= 0.42000)			

2) 학교적응능력에 대한 조절변수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학교적응능력이 연속형 조절변수인 '연령' '실험집단인원', '총 회기수', '1회기당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분석 결과, '연령'은 정(+)방향의 기울기를 나타내었으나, $\beta=0.37606$ ($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실험집단인원'도 정(+)방향의 기울기를 나타내었으나, $\beta=0.10191$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 '총회기수'는 정(+) 방향의 기울기를 나타냈으며, $\beta=0.63293$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총회기가 1회가 많아질 수록 효과크기가 0.63293만큼 늘어났다. '1회기당 시간'도 부(-)의 기울기 방향을 나타냈으며 $\beta = -0.04061$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1회기당 시간이 1분이 늘어날수

록 효과크기가 0.04061만큼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표 4. 학교적응능력에 대한 조절변수

구분	β	SE	Z	P
연령	0.37606	0.34190	1.09991	0.27137
절편	-3.40604	4.13104	-0.82450	0.40966
MODEL	Q=1.20980 (p=0.27137)			
실험집단 인원	0.10191	0.11681	0.87240	0.38299
절편	0.18727	1.10799	0.16902	0.86578
MODEL	Q=0.76109(p=0.38299)			
총회기	0.63293	0.19241	3.28953	0.00100
절편	-3.47714	1.42200	-2.44525	0.01448
MODEL	Q=10.82100 (p=0.00100)**			
1회기당 시간	-0.04061	0.01223	-3.32075	0.00090
절편	3.76724	0.83171	4.52949	0.0001
MODEL	Q=11.02738 (p=0.00090)***			

4)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절변수 분석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효능감이 연속형 조절변수인 ‘연령’ ‘실험집단인원’, ‘총 회기수’, ‘1회기당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실험집단인원, 총회기, 1회기당 시간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이나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의 메타분석을 위해 2014년 5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회지 논문을 검색·수집하였다. 최종 선정된 연구물에서 종속변수로 가장 많이 사용된 자아존중감, 학교적응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을 선택하여 평균효과크기를 산출하고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평균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이었다. 연구결과, 랜덤효과모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효과크기가 1.60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적응능력이 1.3490, 대인관계능력이

1.0670, 자기효능감이 1.0250의 순으로 나타났다. Cohen(1988)의 효과크기 해석기준에 따라 $ES \geq 0.80$ 을 큰 효과크기로 보기 때문에[41], 자아존중감, 학교적응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이 모두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의 Kim(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Kim(2008)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해결중심접근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해결중심접근은 외적행동문제(과잉행동, 품행장애, 공격성 등)이나 가족관계문제에서는 효과가 적었고 내적문제(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우울증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내적행동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학교적응능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에 모두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외적행동문제나 가족관계문제보다는 내적문제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초등학생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외적행동문제보다는 내적문제와 이 중에서도 자아개념 향상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구문제 2는 초등학생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조절변수에 따라 효과크기가 다른가? 이었다. 연구문제 2의 입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가 조절변수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조절변수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연령’, ‘실험집단 인원’, ‘총회기’, ‘1회기당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경우에 ‘총회기’가 늘어날 수록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능력의 경우에는 ‘총회기’가 늘어날 수록 효과크기가 커지고 있었으며 ‘1회기당 시간’이 늘어날 수록 효과크기가 줄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초등학생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총회기’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다. 즉, 총회기가 늘어날 수록 자아존중감의 효과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단기간인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총 회기의 수를 좀 더 늘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총회기’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었다. 즉, 총회기가 늘어날 수록 학교적응능력의 효과크기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초등학생들의 학교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총 회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반면, ‘1회기당 시간’은 늘어날 수록 학교적응능력의 효과크기는 줄어들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 50분-60분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100분 이상을 시행한 연구도 있었는데 오랜 시간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효과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총 회수는 늘어 1회기당 시간은 학생들의 집중도에 맞추어 적절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아동에 대한 해결중심접근의 효과성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조절변수들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의 함의가 있었다.

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연구들은 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초등학생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의 실험연구들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의 연구들의 경우에는 메타분석의 분석대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분석대상의 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분석대상을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해결중심접근의 다양한 메타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물에는 학위논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메타분석은 비출간논문(학위논문)을 제외하고 출간논문(학회지 논문)만을 분석하기 보다는 출간논문과 비출간논문을 함께 적절한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2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출간논문과 비출간 논문의 비율

을 고려하기보다는 메타분석의 분석대상기준에 적합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고, 이러한 점 때문에 비출간 논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절변수 중 상당수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에 다시 검증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좀 더 다양한 조절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강명희,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 강지영,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아동과 일반가정아동의 대인불안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 강향옥, 해결중심의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향상과 대인관계개선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4] 고애화, 결손가정 초등학생의 자기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 한국교육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5] 김계현, 이윤주, 왕은자, “국내 집단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 연구, 제3권, 제1호, pp.47-62, 2002.
- [6] 김금주,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한부모가정아동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7] 김미정,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8] 김성욱, 자기효능감 신장을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광주교육대 석사학위논문, 2011.
- [9] 김영진, 해결중심 단기집단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립아동의 교유관계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

- 향,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0] 김은영, “해결중심단기치료의 국내연구동향분석: 1988-2006”,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5권, 제1호, p.1-18, 2007.
- [11] 김필숙, *ADHD* 아동의 자기통제력 및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2] 남보영, *해결중심 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학습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3] 박소연, 집단상담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14] 서보영, 초등학교 고학년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5] 송혜향, *의학, 간호학, 사회과학 연구의 메타분석법*, 청문각, 2011.
- [16] 양소영, 전영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과 편부모 가족 아동에의 적용”,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0권, 제2호, pp.75-103, 2002.
- [17] 유수정, 아동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1.
- [18] 유승은,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9] 윤보영,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향상과 대인관계개선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0] 윤수미, *영재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21] 이미현,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전주대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2] 이보용,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3] 이선옥,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해결중심 단기집단상담의 효과와 회기별 치료적 요인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24] 이성대, 김선주, 염동문, “사회복지분야의 메타분석 논문에 대한 고찰과 제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 pp.209-213, 2014.
- [25] 이운영,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26] 이해은, *해결중심접근을 적용한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27] 임양숙, *해결중심 상담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초등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청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임지선, 자아존중감향상을 위한 인본주의적/인지행동적 집단상담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29] 전기수,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0] 정문자, 이주경, “학교부적응 아동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의 개발 및 평가”,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12권, 제1호, p.107-139.
- [31] 정정옥,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32] 조민아, *집단상담*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전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3] 조선미, *해결중심적 단기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여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4] 조희주, *해결중심 독서치료*가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1.

- [35] 최신영, 안이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초등 학교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초등상담연구, 제12권, 제1호, pp.13-32.
- [36] 최정선, *집단상담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37] 최지원, *자아탄력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38] 하유정, *해결중심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습부진아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39] 홍기은, 김춘경,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학령초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제14권, 제2호, pp.119-135, 2010.
- [40] 홍성미, “해결중심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 학교 아동의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초등상담연구, 제7권, 제1호, pp.67-90, 2008.
- [41] 홍세희, “*행동과학 연구 메타분석의 적용*”, 제 11 회 사회복지전문가를 위한 연구방법론 워크샵, 중 부재단, 2012.
- [42] I. K. Berg and S. D. Miller, *Working with the problem drinker: A solution-focused approach*, NY: Norton, 1992.
- [43] O. De Jong and I. K. Berg, *Interviewing for solution*, Pacific Grove, CA: Brooks/Cole. 1999.
- [44] Johnny, S. Kim,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 focused brief therapist,” A meta-Analysis, Research in social work practice, Vol.18, No.2, pp.107-115.

저 자 소 개

박 정 임(Jung Im Park)

정회원



- 2002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2004년 3월 : 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부교수

<관심분야> : 정신보건, 가족복지